



2019 세계수영선수권 광주 개최

해 흑자대회 치르려면

펠프스·박태환 같은 스타 마케팅 전략 마련을

경기장 신설 최소화… 중계권료·광고 배분 유리하게
마스터스 참여 선수들 지역 수익과 연결방법 찾아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반드시 '흑자대회'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유치성공에 대한 축하의 말은커녕 공문서 위조를 빌미로 지원불가를 밝히는 등 천덕꾸러기 대회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202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석하는 메가 스포츠 대회를 이처럼 푸대접하는 것은 그 전례가 없는 경우로, 적자마저 본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일단 흑자대회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흑자대회 TF팀 구성 등이 요구된다.

또 국제수영연맹(FINA)과 지속적 인 협상을 통해 중계권료와 광고수익 배분을 등을 최대한 광주에 유리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대회 개최 도시 가운데 드물게 75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대구시의 세계유상선수권 대회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대구육상대회는 세계적인 단일종목 대회라는 점에서 수영선수권대회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진 사례로 삼아야 한다.

대구는 당시 경기장 신설 등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대회 경기장 65개 가운데 무려 59개를 기준 경기장을 개·보수해 활용했다.

이와 유사하게 광주시도 2015년 U 대회 경기장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추가 경기장도 임시시설로 마련하는 등 대회 개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방침이어서 흑자대회의 기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비용절약과

함께 추가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와 스타를 묶은 '스포츠 스타 마케팅'을 제안하고 있다. 피겨 여제 김연아, 체조 요정 손연재처럼 한국 수영을 대표하는 수영 스타를 육성·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의 남·여 박태환을 동시에 육성해 낸다면 국내 흥행은 걱정할 것 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나 박태환, 손양, 아니 아벨 등 대륙별 스타 선수의 출전은 대회흥행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인 만큼 세계적인 수영 스타의 대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펠프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8관왕에 오른 뒤 1억달러의 광고효과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미국 국적인 펠프스는 특히 미국에 수영 열풍을 일으켜 관련 산업을 10% 성장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스포츠 스타 광고에 몰입하는 이유다. 수영은 전 세계 생활스포츠 1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 인기 종목 중 하나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관람 의향자



2011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평영 200m에 참가해 역영하는 여수 출신 정다래 선수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요 및 개최 효과

◆ 광주 경제효과

- (광주발전연구원 추산)
- 생산유발: 1조4000억원
 - 부가가치유발: 6500억원
 - 고용창출: 1만8000여명
 - 경제적 파급: 2조500억원
 - 취업유발: 1만8000명

◆ 대회개요

- 기간: 2019년 7~8월 중 1개월여간 (챔피언십 16일, 마스터즈 10일)
- 참가국: 200여개국 2만여명 (챔피언십 7000, 마스터즈 13000)
- 경기종목: 5개 종목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오픈워터)

◆ 챔피언십&마스터즈

구분	챔피언십	마스터즈
기간	16일	최소 10일
참가자	국가대표 선수	25세 이상 아마추어 선수
참가 종목	경영, 다이빙, 수구, 오픈워터, 싱크로나이즈	경영, 다이빙, 수구, 오픈워터, 싱크로나이즈

도 광주가 수영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영 산업 육성에도 집중해야 한다.

광주민의 대회로만 여기지 말고 인근 전남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 수영연맹과 연계해 국가적인 축제 행사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요구된다. 대회기간 재력을 갖춘 일반인 1만 3000여명이 자비를 들여 마스터즈 대회에 참여하는 만큼 이를 지역 수익과 어떻게 연결하느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문서위조는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하위직 공무원들 "우리가 봉이냐"

'꼬리자르기 행태' 서운함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을 '실무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밝히면서 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위직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라는 것이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란 성명을 통해 "감히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국기를 문란했다"며 "1600여명 실무자와 함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심정적 사직서를 국민

여러분께 제출한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조직이 지시한대로 주말이나 밤에도 불러나와 밭없이 북ழ히 일해왔으며, 새벽에 나와 땅을 쟁고 빗자루를 들고 제설 작업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 단순한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광주시의 모든 정책책임은 실무자가 져야 할 혼란이다. 조직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위직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시청 모공무원은 "최근 시청내 문제가 터지면 고위직이 나서지 않고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행태"라며 "이제는 조직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위직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결을 거쳐 문체부 및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공식행사로 법적·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국제수영연맹에 최종 제출한 서류에는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정부 보증서 정본이 첨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정부에서 끝내 지원을 거절한다면 이는 광주에 대한 차별과 협력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日만령'

- 김종우



'막장드라마' 끝까지 볼란다

"웃음이 터진다구요? 난 지금 매우 진지해요"

김은영
'그림 생각'

(37) 다이어트



보태로 '바를 잡고 있는 발레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매력적인 외모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고 믿는 분위기로 인해 외모 가꾸기, 다이어트, 성형 등 미용 사업들은 불황을 모른다고 한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다이어트를 주된 관심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늘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하는 내게도 '뚱뚱해서 행복한' 인물들을 그려오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1932~)는 위안을 주는 화가다. 작품 '바를 잡고 있는 발레리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발레를 하는 것 같은 몸매의 여성의 한손으로 바를 짚은 채 자주색 토퍼를 신은 발을 한껏 들어 올리고 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지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다. 뚱뚱하지만 무겁지 않아 보여서 보는 이들에게 경쾌함을 선사한다.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보테로는 독학으로 화가가 되었다. '화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은 미술관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공부하며 배웠다. 이탈리아의 프레스코화와 멕시코 벽화에서 대

여성의 아름다움은 꼭 얼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태도나 행동거지 내면의 자아 혹은 자신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 연출 등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시오노 나나미의 언급처럼 미의 기준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준다.

2013년 8월 2일 ~ 6일
문화체육관광부선정 2013년 대한민국 유망축제
2013 목포 해양문화축제
2013 MOKPO MARITIME CULTURAL FESTIVAL

5일간
장소: 삼학도, 평화광장 일원

날만의 날!
2013.8.2(금)~8.6(화)

주최: 목포시
주관: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QR code